



세종의 꿈: 모두를 위한 교육

Sejong's Dream Education for All

세종 프로젝트 2012년 활동보고서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역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Sejong's Dream Education for All

세종의 꿈 :
모두를 위한 교육

.....

펴 낸 날 | 2012년 12월 31일
펴 낸 이 | 민동석
펴 낸 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홈페이지 | www.unesco.or.kr
문 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발협력팀
전 화 | 02-6958-4161
팩 스 | 02-6958-4255
전자우편 | sejong@unesco.or.kr
편 집 | 김희웅, 김명신, 백승현
감 수 | 조우진, 서현숙, 김정하
디 자 인 | 디노디자인

한위간행물등록번호 ED/2012/BK/5

세종프로젝트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세종의 꿈: 모두를 위한 교육

Sejong's Dream Education for All

세종 프로젝트 2012년 활동보고서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엮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Sejong's Dream Education for All

세종의 꿈 :
모두를 위한 교육

-
- 01** 여는 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민동석
 - 03** 모두를 위한 교육
 - 05** 세종프로젝트
 - 07** ‘우리 말’로 배우기:
동티모르의 모국어기반 교육사업
 - 15** 여럿이 함께 배우기:
라오스의 복식수업 교사연수 사업
 - 23** 95%의 역설,
소외된 5%를 위한 희망 이야기:
필리핀 소외마을 문해사업

-
- 31** 파키스탄의 작은 변화:
파키스탄의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

 - 39** 세종을 말하다 1 :
세종프로젝트 담당자 | 조우진, 김희웅, 김정하

 - 41** 세종을 말하다 2 :
파키스탄 분야드재단 부이사장 | 샤인 아티크 울 라만

 - 42** 세종을 말하다 3 :
유네스코 동티모르위원회 위원장 | 크리스티 구스마오

 - 43**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44** EFA 글로벌활동주간

세종의 꿈 모두를 위한 교육 : 여는 글



지난 해 말 전 세계 뉴스의 머리기사를 파키스탄의 한 10대 소녀가 장식했습니다. 말라라 유수프자이는 파키스탄 북부 밍고라에서 학교에 다니며, 장차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평범한 여중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는 곳은 탈레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내전지역이었고, 탈레반은 그 지역 여성들의 교육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말라라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여성의 교육 받을 권리를 주장해왔고, 2012년 10월에는 탈레반 무장괴한이 쏜 총에 맞아 머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말라라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무사히 회복 중이며, 여전히 교육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는 약 6천 1백만 명의 아이들이 가난, 소외, 차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7억 7천 명이 넘는 성인들이 읽고 쓰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 받을 기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차별 받고 있는 세계의 ‘말라라’를 돕기 위해 2012년 세종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단순히 학교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떠올리지만, 실상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학교가 있어도 학교 갈 시간에 돈을 벌어야 하고, 학교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회적 관습에 영향을 받고, 학교를 가도 말이 통하지 않고, 학습 여건이 좋지 않아 배울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런 다양한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교육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의 교육사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종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는 동티모르, 라오스,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교육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언어사회인 동티모르에서는 소수언어를 쓰는 아동들도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국어수업을 실시하였으며, 필리핀에서는 분쟁지역 마을들을 대상으로 문해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성인 여성들에게 새로운 문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고, 라오스에서는 소수민족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오백 년 전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보다 쉽게 익혀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런 세종대왕의 꿈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프로젝트를 포함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여러 사업에 대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민동석

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

우리는 나이가 들면 학교에 가서 글과 셈을 배우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렇듯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어린이 수가 **6천 1백만 명**
 4학년이 되어도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못하는 학생 수가 **2억 5천만 명 이상**
 청년들 중 초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 **2억 명 이상**
 성인 중 글을 모르는 사람이 **7억 7천 5백만 명**

출처 2012 EFA 세계현황보고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stitution, believing in
 full and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 for all.**”

유네스코헌장, 1945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세계인권선언, 1948



국제사회는 모두가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0년 태국, 줌티엔에서 범세계적인 기초교육 운동인 '모두를 위한 교육'(EFA)을 출범시키고,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2015년까지 달성할 EFA의 6가지 국제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목표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확대와 향상
- 목표 2** 양질의 무상 의무 초등교육 보편화
- 목표 3** 모든 청소년과 성인의 학습요구 충족
- 목표 4** 성인, 특히 여성 문해율 50% 증진
- 목표 5** 교육의 양성평등 달성
- 목표 6** 교육의 질 향상

The Sejong Project

세종프로젝트



15세기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글자를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려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21세기 오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세종의 큰 뜻과 꿈을 본받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제적인 기초교육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장려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1989년에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세종프로젝트는 문해교육에 있어 우수성을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단체들과 유네스코의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의 사람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기초교육사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종프로젝트 :

.....
동티모르

‘우리 말’로 배우기 :
동티모르의 모국어기반 교육사업

.....
라 오 스

여럿이 함께 배우기 :
라오스의 복식수업 교사연수 사업

.....
필 리 핀

95%의 역설,
소외된 5%를 위한 희망 이야기

.....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작은 변화 :
파키스탄의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

첫 번째 이야기

동티모르

‘우리 말’로 배우기 :
동티모르의 모국어기반
교육사업

현지 협력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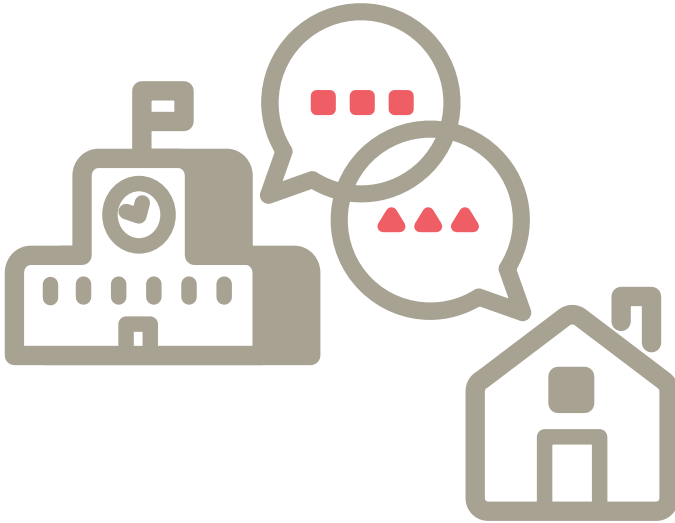
유네스코동티모르위원회,
동티모르 교육부



East Timor (Timor-Leste)

포르투갈의 지배와 인도네시아의 점령으로부터
2002년 독립한 젊은 나라 동티모르

인 구	1,153,8000
빈 곤 인 구 비 율	37.4%
농 촌 인 구 비 율	71.4%
기 대 수 명	62.5세
성 인 문 해 율	50.6%
일 인 당 G D P	\$731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1000명 중 56명



66%

동티모르의 교과서는 동티모르 공용어*중 하나인 포르투갈어로 쓰여있습니다.
 그러나 동티모르 학생들 중 **80%**는
 집에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티모르 학생들 중 **66%**는 학교와 집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동티모르의 공용어는 포르투갈어와 테툼어이다.
 두 가지 공용어 이외에도 16개 다른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출처 2009 세계은행 통계



동티모르의 아이들이
포르투갈어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4년...
동티모르의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는 친숙한 배움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생소한 언어가 사용되는 낯선 타지와 같습니다.



더 이상 동티모르의 아이들이 학교와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세종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티모르의 모국어기반 다국어교육 시범사업을 지원합니다.

아이들이 실제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와 수업방식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아 크리스토 레이씨는 오랫동안 학교 선생으로 근무했지만
항상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심지어 수업 교재마저도 포르투갈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티모르의 모국어기반 교육사업은 크리스토 레이씨와 같은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동티모르 고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조아 크리스토 레이씨가 모국어인 갈로리어로 쓴 동티모르의 동화집



모국어기반 다국어교육 정책

Mother tongue Multilingual Education



유네스코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일환으로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소수자를 위한
 ‘모국어기반 다국어교육’ 정책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서는 모국어로 가르쳐
 어린이들이 배움에 친숙해지도록 돕고, 고학년이 되면
 점차적으로 공용어로 배우도록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유네스코동티모르위원회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유네스코의 모국어기반 다국어교육 정책을 동티모르의 12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2012년에 결정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포함하여 호주, 케어인터네셔널, 플랜, 유네스코 딜리사무소 등 여러 기관의 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모국어기반 교사연수, 학부모 인식증진 홍보사업, 모국어기반 교재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4년까지로 기한이 정해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전국적으로 모국어기반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국어기반 정책은 유네스코가 주창하는 언어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지지하며,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주창하는 교육 기회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에 기여합니다.



동티모르의 여러 이야기들과 전통문화가
동티모르의 고유한 언어로 전해지고,
동티모르의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만큼,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라오스

여럿이 함께 배우기 :
라오스의
복식수업 교사연수 사업

현지 협력 기관

라오스 교육부 교원정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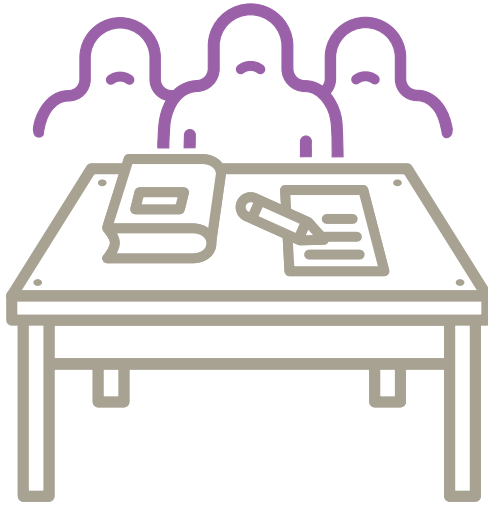


라오스 (Lao PDR)

동남아 내륙의 불교국가 메콩강에서부터 불로방고원까지
68개 종족이 함께 사는 나라 라오스

인 구	6,288,000
빈 곤 인 구 비 율	33.9%
농 촌 인 구 비 율	65.7%
기 대 수 명	67.5세
성 인 문 해 율	72.7%
일 인 당 G D P	\$2.048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1000명 중 59명

출처 UNDP 인간개발보고서



29.3%

‘모두를 위한 교육’(EFA)과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 의무 초등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채택됨에 따라 1999년 77%이었던 라오스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2010년 97%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속한 증가의 이면에는 교실 당 학생수 과다와 역량 있는 교사의 부족과 같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실과 교사 부족 문제 중 하나로 농촌지역에서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공부해야 하는 복식학급이 늘어났습니다.

2011년 라오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라오스 내 **29.3%**의 학급이 복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농촌과 고산지대에 주로 만들어진 복식학급

서로 다른 학년과 수준의 학생들이 섞여 있고,
 라오스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도 달라,
 교사들이 수업에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현재 이런 복식학급을 운영 중인
 라오스의 소수민족 선생님들에게 라오스 교육부가 추진하는
 복식수업 방법에 대한 교원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남부의 사네움녹 초등학교 2+3학년 복식학급을
가르치는 25살의 빌레이소네 케어콤퐁 선생님



“이번 연수를 통해 복식학급을 위한 수업계획을 만들고
그룹 활동을 포함한 수업방식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 번에는 보다 심화된 장기연수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빌레이소네 케어콤퐁 선생님

대부분의 소수민족 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업은 음악과 미술.
라오스어를 배우는 국어시간보다
수학이 더 재미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일상 생활에서 부족어를 사용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라오스어 수업은 어렵나 봅니다.



세종 프로젝트는 소수민족 지역의 선생님들이
복식 학급과 다언어 사회라는 두 가지 난관을 극복하여
수업 효율성을 높이고, 모국어를 기반으로
라오스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의 어린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라오스의 희망교실을 꿈꾸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세종프로젝트는
라오스의 복식수업 연수사업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필리핀

95%의 역설,
소외된 5%를 위한
희망 이야기

현지 협력 기관

필리핀 교육부 산하의 문해조정위원회
동남아시아교육장관기구 교육혁신기술지역센터



필리핀 (Philippines)

7,100여 개의 섬들로 반짝이는
서태평양의 섬나라 필리핀

인 구	94,852,000
빈 곤 인 구 비 율	22.6%
농 촌 인 구 비 율	50.9%
기 대 수 명	68.7세
성 인 문 해 율	95.4%
일 인 당 G D P	\$3,216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1000명 중 33명

출처 UNDP 인간개발보고서



94.2%

초등학생 연령 아동 중 미취학 비율(2009년 현재): 11%
학생/교사 비율(초등, 2009년 현재): 31명
GDP 대비 교육지출비율(2009년 현재): 2.7%
문해율(15세 이상) : **94.2%**

〈출처: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데이터베이스, 2010〉



필리핀 30개 마을(바랑가이) 문해진흥사업

Uplifting the Situation of 30 Bottom Villages(Barangays) in Literacy in the Philippines: Achieving Education for All by 2015



필리핀의 기초문해율은 약 95%, 이미 높은 문해교육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낙후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문해율 95%는 역설적이게도,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5%의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필리핀 세종프로젝트는 필리핀 내 낙후지역 30개의 바랑가이 사람들이 누구든 읽고 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문해교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랑가이 지도자와 문해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건실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십중팔구... 필리핀 인구의 열 명 중 아홉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면
기초적인 문해교육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95% 문해율이라는 통계수치는 소외된 5%를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더 멀어지게만 합니다.

가장 낙후한 지역에서 살며 문자도 없이,
그 마을에서만 통용되는 말로 소통하는 5%의 사람들과 아이들은
배움이나 좋은 일자리로부터 소외되어 갑니다.





필리핀의 타굼시에서 버스를 타고 20분만 나가면,
리보가는 마을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친구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 친구들이,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리보가는 마을의 대부분...



리보가는 마을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세종프로젝트!
 민다나오의 30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희망의 샘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딴 시골마을에 살면서 매일 야시장에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이미 글을 배우기엔 나이를 훌쩍 먹었지만 글을 배우고자 하는 모두에게
 학교를 만들어 배움의 놀이터로 초대하고,
 학교에 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교실에 바퀴를 달아 야시장 배움터로 찾아가는
 움직이는 학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읽고 쓰는 힘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필리핀 세종프로젝트!

세상의 중심은 5%의 소외된 이들이라 생각하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100%의 세상을 꿈꿔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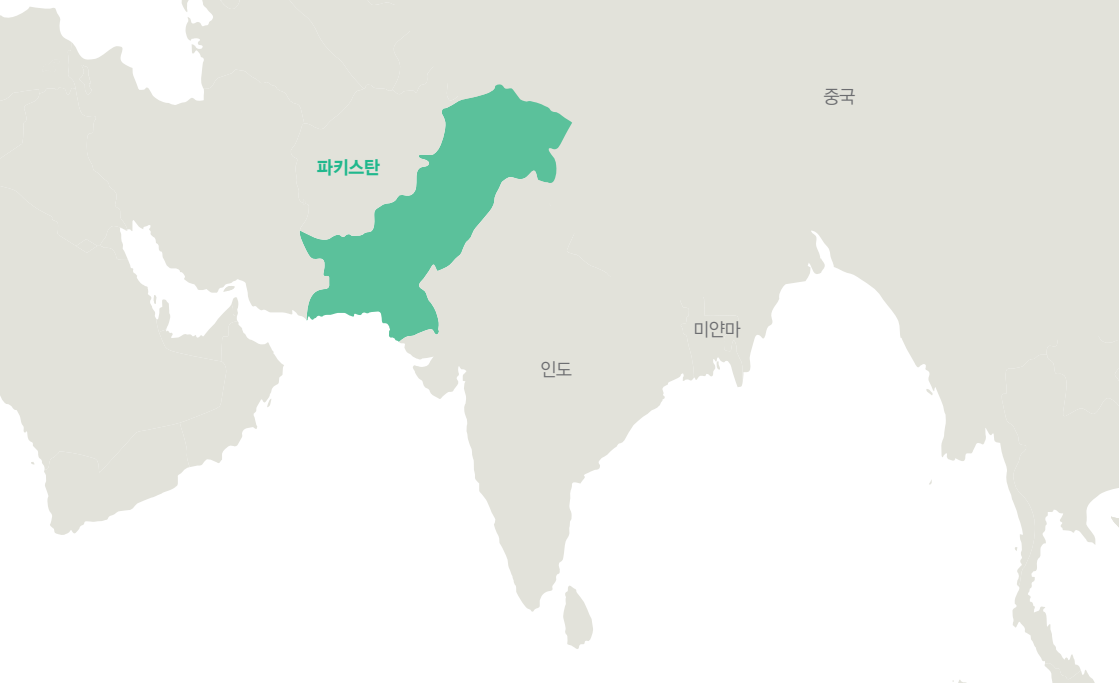
네 번째 이야기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작은 변화 :
파키스탄의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

현지 협력 기관

분야드재단 (Bunyard Foundation)



파키스탄 (Pakistan)

남아시아에 위치한 “순수의 땅” 파키스탄

인 구	176,745,400
빈 곤 인 구 비 율	22.6%
농 촌 인 구 비 율	63.8%
기 대 수 명	65.4세
성 인 문 해 율	55.5%
일 인 당 G D P	\$2,369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1000명 중 87명

출처 UNDP 인간개발보고서



55.5%

유네스코 통계에 의하면 세계 성인 문해율은 84.1%,
그러나 파키스탄의 경우 성인문해율이 **55.5%**에 불과하여
성인 인구의 절반 가량이 읽고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문해율이 68.6% 인데 반해,
여성의 문해율은 40.3%로, 남녀 성비 격차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파키스탄의 중부 하피자바드시 인근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만난 25살의 여성 '슈바나'.

그녀는 글을 읽고 쓰고 싶어서 문해교실에 왔습니다.
파키스탄의 여러 사회적 굴레에도 불구하고, 슈바나가 용기를 내어 교실을 찾은 이유는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육수준과 문해력이 대물림 되는 파키스탄의 사회구조 속에서
슈바나의 힘찬 발걸음은 작지만 큰 긍정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세종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세종문화상 수상단체인 파키스탄의 '분야드재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야드재단은 파키스탄의 교육발전을 위해
라호르와 하피자바드의 두 개 지역에서 30개 여성 문해센터를 열었고,
30개 유치원을 설치하여 성인문해교육과 영유아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을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조금 어렵더라도 학교에 계속 보낼 것을 권장하는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시골 작은 마을의 미로같이 복잡한 길을 건다가
 갑자기 나타난 세종프로젝트의 성인문해센터 간판,
 그곳이 바로 여성문해교실을 운영하는 여성교사의 집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여성들은 여러 사회적 제약에 구속 받고 있습니다.
 자기 마을 내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여성들에게
 여성교사의 집은 가장 편안한 배움의 장입니다.

세종프로젝트는 파키스탄에서 성인문해 캠페인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교육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아이들에게 놀이의 공간을 주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변화의 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프로젝트는 파키스탄의 아이들이 평생 배움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교육을 향한 열정으로
오랜 사회적 굴레를 넘어서는
파키스탄 사람들의 꿈과 용기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세종프로젝트는 지원합니다.

세종을 말한다 :

01

조우진 교육팀장

(2012 세종프로젝트 담당팀장)

Q. ‘세종프로젝트’ 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A. ‘세종프로젝트’ 는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름에 담긴 뜻은 훈민정음 창제에 담긴 애민(愛民)사상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유네스코가 1989년부터 수여한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의 수상기관들과 협력을 고려한 이름입니다.

Q. 왜 최근 주목 받는 고등교육이나 직업교육이 아닌 기초교육에 초점을 맞췄나요?

A. 우선 국제적으로 EFA와 함께 MDGs를 고려하였습니다. EFA는 물론이고, MDGs의 두 개 교육목표(2, 3번)가 기초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에 따라 교육ODA를 확대하면서 기초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프로젝트는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기초교육에 대한 경향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Q. 세종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A.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거의 모든 유네스코 회원국에 설치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단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초교육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의 정부, 유관기관,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기관과 유연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세종프로젝트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A. ‘세종프로젝트’ 는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제사회의 기초교육 분야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향후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 위상에 어울리게끔 국제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냉정한 평가를 통해 교육 분야의 모범적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희웅 교육팀

(2012 세종프로젝트 담당자)

Q. 담당자로서 2012 세종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주요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A. 담당 실무자로서 2012년에 세종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었고, 첫 해인 만큼 많은 실적보다는 좋은 파트너를 발굴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의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이 대부분 공여국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종프로젝트는 현장이 중심이 되어 현장의 파트너들이 주도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부족함도 많았지만 좋은 파트너와 현장중심의 사업을 하겠다는 최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나 자평해봅니다.

Q. 진행과정에서 여러 현장을 다녀왔는데, 느낌은?

A. 현장에 가면 몸도 힘들고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마음은 정말 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학부모와 선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교육과 발전을 향한 사람들의 열망이 가슴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세종프로젝트가 각 현장마다 많은 액수를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저희의 작은 지원이 아이들과 여성들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 습니다. 그리고 세종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유네스코 네트워크와 파트너 기관들의 노력과 우수성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김정하 개발협력팀

(2013 세종프로젝트 담당자)

Q. 2013 세종프로젝트는 어떻게 바뀌나요?

A. 올해부터 세종프로젝트는 기초/문해 교육 사업 단체에 교육 기자재 및 교보재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기초/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나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내용도 공급함으로써 좀 더 풍성한 교육 ODA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또한, 태평양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사업 범위를 확장해서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Q. 세종프로젝트가 그리는 미래 모습은?

A.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기초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그 지식이 머리 속에 있다는 것 이상입니다. 특히 한 개인이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가고 제약 없이 활동하는 데 초석이 되는 것이기에 기초교육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개인(더 나아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이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특히 수요가 높은 농업기술과 적정기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문해와 기초교육 모두 과거 세대부터 전해져 온 지식을 현 세대가 잘 전수받아서 좀 더 발전하게끔 하는 것이 공통의 목적일 테니까요.

세종을 말하다 :

02



샤인 아티크 올 라만
파키스탄 분야드재단 부이사장

Q. 분야드(Bunyad)는 무슨 뜻이에요?

A. 파키스탄에서 사용되는 우르드어로 근간/기초 (Foundation)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교육과 사회개발 사업을 통해 파키스탄의 근간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분야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Q. 부이사장이지만 실제 분야드재단의 설립 자라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분야드재단을 만들게 되었나요?

A. 사실 저는 파키스탄 펀자브지역에서 대대로 주지사를 지낸 지방유지의 버릇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변호사와 지방정부 관료로 일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 일반국민의 어려움을 보고, 이를 개선하는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 중에서 방글라데시에 세워진 BRAC과 같은 대규모 NGO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파키스탄에도 이와 같은 단체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분야드재단의 교육사업 특징은 무엇인가요?

A. 분야드는 소액금융사업을 포함하여 환경사업, 보건사업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을 포함하여 분야드의 여러 사업들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야드재단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공동체를 동원하여 함께 기획하고, 함께 추진합니다. 또한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동체 스스로 관련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합니다. 세종프로젝트의 성인문해사업과 유아교육사업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었습니다.

Q. 분야드재단과 세종의 인연은 깊다고 들었습니다.

A. 네, 분야드는 2003년에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수상기금으로 지역공동체 교육센터를 설립해 분야드재단 사무실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종프로젝트도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인연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세종을 말하다 :

03



크리스티 구스마오
유네스코동티모르위원장

Q. 어떤 계기로 모국어기반 다국어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나요?

A. 2009년에 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동티모르의 교육환경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저학년 과정에서 모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동티모르 사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유네스코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모국어기반 교육을 연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치적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이번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지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Q. 모국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없나요?

A. 아직 모국어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정책을 정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중요하고,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동티모르

의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를 무서워하고, 수업을 이해하지 못해 학교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Q. 시범사업이라 했는데, 그럼 시범사업 이후에는 어떤 미래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A. 우선 2014년까지 세종프로젝트와 케어인터네셔널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모국어기반 교육사업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검증되면 현재 12개 학교에서만 진행하는 모국어수업을 교육부 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사업에 대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종프로젝트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알 기

전 세계 교육현황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세요. www.unesco.or.kr

알 리 기

교육권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1948)

행동하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희망나눔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열정과 재능을 나누어주세요!

유네스코 아프리카 희망브릿지 프로그램 :

아프리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활동지역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원활동 프로그램
- 장기(2년)/문해&생활기술교육 등 -

국제워크캠프(국제자원활동) :

세계 여러 나라 청년들이 각 지역사회와 관련 있는 이슈들을 체험하며,
지역문제와 세계문제의 연관성을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실천적 국제교류 프로그램
- 단기(2주)/문화유산복원,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 -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

평화, 인권, 다문화 등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이 우리 마을(학교)의 문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고민하고,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계획하여 실천하는 프로젝트
- 연간/사라져가는 우리 문화 '판소리' 알리기 캠페인, 다같이 재미있는 학교 만들기 등 -

자세한 참가방법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unesco.or.kr)를 참고해주세요.

EFA Global Action Week

EFA 글로벌활동주간



Global Action Week는 무엇인가요?

유네스코와 국제사회는 ‘모두를 위한 교육’ (EFA)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년 4월 넷째 주를 Global Action Week(글로벌활동주간)로 지정하고 국제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Global Action Week에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매년 Global Action Week는 새로운 교육관련 주제를 하나씩 선정하여 관련 활동을 실시합니다. 2012년 Global Action Week의 주제는 ‘유아교육’으로, 전세계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편지를 쓰거나 포스터를 그리는 행사 및 관련 회의들이 열렸습니다.

Global Action Week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가장 간단하게는 Global Action Week에 함께하겠다는 트윗(tweet)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트윗 남기기 웹사이트 주소: <http://www.globalactionweek.org/#tweet>
- 아태지역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학생 대상의 사생 대회가 열립니다.
- 이외에도 글쓰기 대회와 같은 다양한 참여기회가 있으니 4월 첫째 주 이전에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ww.unesco.or.kr

비매품



9 788994 307381

ISBN 978-89-94307-38-1